

“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선진 계리 전문가 단체”

 한국보험계리사회	<h1>보 도 자 료</h1>			
	보 도	배포 후 즉시	배 포	2020. 6. 26.

책임자	서영일 사무국장(seoil01@actuary.or.kr)	총 2면
담당자	정도희 팀장(dh.jeong@actuary.or.kr)	

제목: [사]한국보험계리사회 계리업무총괄추진단 신설

- ◇ 계리 업무 관련 사업을 총괄할 ‘계리업무총괄추진단’ 신설
 - 보험회계위원회, IFRS17실무특별위원회 등 계리업무 관련 6개 위원회를 관장하며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역할 수행
 - 추진단 단장으로는 임창원 고문(계리사회) 임명

I 계리업무총괄추진단 신설

□ (배경) IFRS17, K-ICS 등 새로운 제도가 보험 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에 따라 계리업무표준*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자율규제기구의 필요성 대두

*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추진단 신설. 여기서의 ‘계리업무표준’은 권고적 수준의 가이드라인 제시를(예: K-ISAP 등) 의미하며, 강제적 수준의 계리기준을 의미하지 않음

본회는 국제계리사회에서 제정·배포한 국제계리업무표준(ISAP)을 K-ISAP으로 번역·채택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회원에게 계리업무 시 참고할 것을 권고

- K-ISAP-01(일반기준) : 2014.07 채택 및 공시 완료(현재 개정 사항 반영 예정)
- K-ISAP-03(종업원급여) : 2015.09 채택 및 공시 완료
- K-ISAP-04(IFRS17) : 현재 K-ISAP T/F에서 번역 완료, 이후 채택 절차 진행 중

- 계리업무표준과 관련하여 회계기준원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가 없으며 나아가 계리업무표준이 회계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되는 문제 발생
 - 현재 계리사회 내 관련 위원회들이 개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통합된 기구의 부재로 중복 업무가 발생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제한적인 상황
- 이에, 지난 2차 이사회(6/19)에서 계리업무총괄추진단 신설 및 운영에 대한 승인 완료

II 계리업무총괄추진단 구성 및 역할

- **(구성)** 단장은 이사회 만장일치로 임창원 고문(계리사회, 숭실대 교수)이 선정되었으며, 보험회계위원회, IFRS17실무특별위원회, 가정관리특별위원회, 지급여력특별위원회, 계리기준위원회 및 K-ISAP T/F 등 6개 위원회의 위원장들이 위원으로 참여
- **(역할)** 본회가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아래의 역할 수행
- IFRS17 관련 6개 위원회 관장, 감독 당국 및 감사에 대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 제시, 新제도 시행 전 계리업무 주도권 확보 등
- 참고로 추진단은 이사회 산하 기구로서 해당 업무 의결권, 집행권 및 직원 인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며, 관련 예산도 별도 책정
- 이후, Kick-Off 미팅을 통해 추진단의 세부 R&R을 확립할 예정